

"평화통일에 힘 모으자"

원행 스님, 백준기 통일교육원장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평화통일을 위해 사회와 종교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백준기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의 예방을 받고 "평화통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절집에서는 모든 사람을 한뿌리라고 말한다.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준기 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평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통일교육원의 교육을 설명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평화통일에 찬성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백 원장은 이어 "평화는 불교정신인 자비와도 연결된다. 평화를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 예방에는 조계종 측에서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연꽃마을 대표 원상 스님 취임

3월 23일 취임식 성료 "법인역량 강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3월 23일 파라밀요양병원 1층 강당에서 제4대 대표이사 원상 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내외 스님들과 300여 대중이 참석해 취임식을 축하했다.

신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1986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 동안거 이래 해인사, 통도사, 법주사, 대승사, 대흥사 등에서 33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천안 은석사, 대구 정법사, 서울 부황사 주지, 단양 미륵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금성선원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총무분과위원장, 의료법인 연꽃마을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이다.

취임식 내빈으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등 스님들과 이후삼 국회의원,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원상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 계승발전, 법인 역량강화, 법인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법인사옥 이전 및 덕산당 각현 스님 부도탑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출가 전 조리경력 사찰음식에 활용"

Interview

사찰음식 전문강사 청일점 우일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월 28일 전문강사과정 수료

호텔요리사 · 교수로도 활동

은사 30년 설득에 발심 출가

"대중화 · 체계화 앞장설 것"

"30년 넘은 은사스님의 설득으로 사찰음식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출가 전 조리경력을 활용해 사찰음식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사찰음식이 대중화되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명호텔 요리사 출신 사미 스님이 사찰음식 전문가로 나서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우일 스님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3월 28일 서울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사찰음식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11명의 사찰음식 강사들이 배출됐다. 이 중 출가 전 유명호텔 요리사와 조리직업전문학교 교수로 활동한 우일 스님은 청일점이자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우일 스님은 현재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으로 5년 전 은해사서 출가했다. 이전에는 경기대 조리학과와 경희대 관광대학원을 졸업,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6년간, 삼성에버랜드 급식사업 파트에서 5년간 일했다. 또 국제조리직업전문학교 조리학과 교수로 3년간 근무하며 후학을 직접 양성하기도 했다.

우일 스님은 30년 넘은 은사 덕조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찰음식 강사의 길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출가를 설득하셨다. 특히 조리사 경력을 살려 사찰음식 체계를 정립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며 "양식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한 만큼 한식, 특히 사찰음식은 도전이었다. 흥거 등 생소한 식자재와 조리방법도 색다른 게 많았다. 장아찌 종류도 약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사찰음식을 배우며 알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음식은 채식을 기반으로 자연의 맛을 살린 건강식"이라며 "전통적인 사찰음식 기법에 양식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맛보게 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음식을 접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또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계획도 전했다. 스님은 "일본하면 떠오른 '스시'도 처음 서양에 소개됐을 때는 날것을 먹는 미개한 음식으로 무시당했다"며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홍보를 통해 현재는 최상위 음식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사찰음식도 종교음식이란 편견이 있지만 지속적은 홍보와 연구로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음식으로 인식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일 스님은 현재 제주 약천사에 기거하고 있다. 스님은 이번 강사 수료와 함께 제주도에서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찰음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스님은 "제주도의 다양한 먹거리 중에 사찰음식 콘텐츠도 한 분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내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약천사에서 참배객들이 직접 요리하고 먹는 관광콘텐츠로 사찰음식을 활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홀몸 어르신 돌본 자비의 쌀"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90가구에 총 1,800㎏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총 1,800㎏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는 3월 23일 그동안 불자들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공양한 자비의 쌀 1,000㎏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진안군 11개 읍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됐다. 탑사는 지난해부터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오고 있다.



마이산 탑사는 3월 23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자비의 쌀 1,000㎏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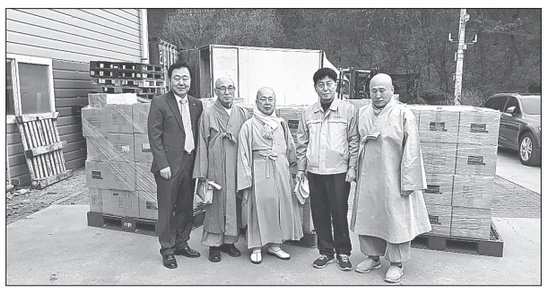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정초기도를 통해 불자들이 정성으로 올린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돼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진안군 각 면소재 봉사단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 쌍봉사도 3월 23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800㎏을 전달했다. 쌍봉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4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됐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성 스님을 비롯한 탑사 신도들과 쌍봉사 보경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얀마 극빈지 의약품 전달

미얀마친선교류협회 · 세계불교법왕청 공동



한국 미얀마친선교류협회와 세계불교법왕청은 2월 26일 미얀마 코리아 기술대학교 개교 행사 이후 극빈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3억 원에 해당되는 필수 의약품을 전달했다. 협회와 법왕청은 회장 목탁 스님과 상영민 이사장 등이 참석한 전달식을 통해 미얀마 소수민족들에게 콘테이너 한 차량분량의 의약품을 전달한다. **윤호섭 기자**

"오직 진리 향해 정진하자"

불교조계종, 경남 직할사찰 현판법회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3월 24일 창원 양곡 보현사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직할사찰 보현사 현판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법회의 증명법사로는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스님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가 다르다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종교나 종파 등에 매몰되지 말라. 오직 진리를 향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불교 최고 명호 받아

성원사 주지 박혜정 스님 현지서 수여



충북 영동 성원사 주지 박혜정 스님은 3월 20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최고의 성자 칭호인 아까 마하 사다함마 더티카 하자의 명호를 받았다. 박혜정 스님은 세계불교법왕청 소속 스님으로 오랫동안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극빈지역 봉사활동과 보시행을 펼쳐왔다. 이에 공로가 인정돼 미얀마 불교계서 명호를 수여했다. **윤호섭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